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눔 사무엘상 17:45~51 다윗의 승리, 서울의 번민 영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미디어공간간대어 느헤미야 2:1~8 느헤미야, 보직이동!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본문	욥기 20장
설교	그치지 않는 소발의 도발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다
화	창세기 50장 요셉도 죽다
수	사무엘상 5장 위엄있는 사랑
목	마태복음 2:1-12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금	마태복음 2:13-23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 가족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영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 미올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출애굽은 역사일까?
고고학으로 해부한다
(1)

한문덕 목사가 진행하는 ‘캡사이신학’을 추천합니다. 오랜 신학적 주제인 ‘출애굽기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 고고학자인 이삭 박사와 함께 고찰합니다. ‘예수혁명당’은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로 시간을 옮겨 진행합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진행 중 어제(11일)부터 인천 강화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다음주일 10월 19일에는 올해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가 있습니다. 교인 의무 수강인 만큼 모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강사 :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공연이 있습니다. 연습은 오늘 오후 3시 한빛교회입니다.

양미혜 장로 취임식 양미혜 집사의 장로 취임식을 노회 보고 후인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30일(목) 오후 7시 30분에 피택자 부부, 담임목사가 참여하는 서울북노회 장로임직예정자 결단기도회가 신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헌금 동참 바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교인의 책무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성실히 헌금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 현장예배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오는 29일(수) 오후 6시 50분에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1번 출구 옆 소공원에서 현장 수요예배를 진행하고 이태원참사현장까지 행진합니다.



구재숙 집사 공연 연극배우인 구재숙 집사의 공연 ‘소송광’이 24일(금) 오후 7시 30분, 25일(토) 오후 4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티켓 구매는 아래 큐알코드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0월 교회 십일조 옥바라지선교회	10월 안내 1여교우회	지난주 헌금액 2,744,000원
-----------------------	-----------------	-----------------------

교회여 일어나라

-이민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미국이 위험합니다. 내전이 임박한듯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다시 암흑으로 빠트릴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민자들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를 결집하고 반대자들을 좌파라 규정하며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는 계산입니다.

이런 와중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은, 암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 주교님들이 바티칸을 방문하여 전달한 이민자들의 영상 편지와 손편지들을 함께 보시며,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교육받을 기회를 잃을 아이들의 이야기,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은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강조하시며 교회가 이민자들과 “동행하며 이민자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특정 국경이나 인종을 넘어 모든 이에게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황님은 또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단상 앞에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차별의 낙인으로 이주민을 대해선 안 된다는 교황님의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이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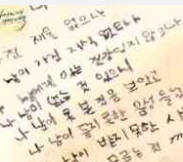
우리 가톨릭교회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민자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님 안에서의 평등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민자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이민자들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 지성룡 신부



‘나’ ‘그이름’ 등의 주옥같은 찬송시를 지은 송명희 선교사께서 병커1교회를 위해 봉헌하셨습니다. 송 선교사는 매주 수요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BUNKER 1 | 병커1교회

2025년 10월 12일
통권 13권 31호
창조절 6주일

2025년 병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병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병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13

-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 찬양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징 울리며 묵상하기 정방남 원로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찬송 복음성가
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 기도 사이먼 집사

■ 성경봉독 요한복음 4:16~21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18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9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십여 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1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	--

김용민 목사 그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 설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지만,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 곧 목적지에 이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은 인생의 혼돈과 두려움, 혹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의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과학과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걸어나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결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관계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배가 목적지에 닿았듯, 믿음의 핵심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막 9:23)는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능력은 기적적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은 이성과 과학이 신의 자리를 채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계산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죽음, 외로움, 불안 같은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풍랑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채우는 미신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입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 혁명, 공익을 위해 맞서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강력한 격려가 됩니다. 불의와 폭력 앞에서 인간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곁에도 진리와 정의를 붙드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익을 향해 나아가는 신념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확신이 아니라, 어둡고 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배 위에 있으므로, 풍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믿음은 단순한 개인적 위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적 용기를 낳는 힘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불의와 맞설 때,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의 풍랑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미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광고

사회자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축도

김용민 목사